카카오 '콘텐츠·플랫폼' 양날개로 매출 飛上… 네이버 추월

3분기 매출 1조7408억 '역대 최고'
전분기비 29% 전년동기비 58%↑
비즈보드 등 플랫폼 부분 7787억
게임·뮤직 등 콘텐츠 부문 9621억
사회적 책임 위한 ESG경영 가속화

카카오가 3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플랫폼 부문이 꾸준한 성장을 이끌고 게임, 웹툰 등 콘텐츠 분야가 약진하면서다. 특히 매출은 처음으로 네이버를 추월했다.

카카오는 K-IFRS(한국국제회계기준) 기준 2021년 3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난 1조7408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68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9.7%다.

2021년 3분기 영업비용은 전 분기 대비 32%, 전년 동기 대비 60% 늘어난 1조5726억원으로, 글로벌 사업의 확장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플랫폼 부문 안정화로 실적 견인

플랫폼 부문의 안정화가 실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카카오의 3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7787억원으로 집계됐다.

톡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4049억원이다.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등 광고형 매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톡스토어, 선물하기 등 거래형 매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192억원이다.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은 카카오페이의 결제,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2547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앞으로 메타버스로도 플랫폼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메타버스와 NFT 모두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그라운드X의 기술력과 공동체 콘텐츠 자산을 활용한 NFT 전략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전년比 84% 성장한 콘텐츠

카카오의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63%,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9621억원이다.

카카오 대표 플랫폼 '카카오톡'

카카오 게임 콘텐츠 '오딘'

스토리 매출은 플랫폼과 IP 유통 거래액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타파스와 래디쉬의 편입으로 전 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한 2187억원을 기록했다.

뮤직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971억원을 달성했으며 미디어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831억원이다. 게임 매출은 4631억원으로 양대 마켓에서 1위를 달성한 모바일 게임 '오딘'의 기록적인 성과로 전분기 대비 260%,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4분기부터는 웹툰 분야의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카카오재팬이 카카오픽코마로 사명을 변경하고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

카카오재팬은 일본을 넘어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카카오픽코마로 사명을 변경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재팬은 올해 9월 프랑스에 픽코마 유럽(Piccoma Europe) 법인 설립을 완료했으며, 연내 프랑스에서 픽코마를 론칭할 예정이다.

배재현 카카오 CIO(최고투자책임자)는 "픽코마가 지난 9월 유럽 법인을 만들었고, 연내 프랑스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시장은 일본 망가에 친숙하지만 디지털화는 초기 단계다. 픽코마의 글로벌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 더 강화하는 카카오

카카오는 이번 실적발표에서 '상생'을 강조했다. 여민수 공동대표는 "카카오 둘러싼 논란은 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카카오는 파트너들과 함께 나아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친환경 오피스 구축, 소상공인, 창작자, 창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카카오 클래스' 진행,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ESG펀드 조성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향후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확장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상생과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ESG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GS칼텍스, 윤리경영 강화로 ESG가치 실현

글로벌 기관 'ISO37301 인증' 획득
윤리의식 강화, 전사적 CCP 진행

GS칼텍스가 '윤리경영'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에 나선다

GS칼텍스는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기업 경영에서 법규준수·준법감시·내부통제를 뜻한다. 회사 구성원이 사내 규정과 국내외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관리·감독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GS칼텍스가 글로벌 인증기관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인증받은 ISO37301은 지난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이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다. BSI는 세계 최초의 국가표준 제정기관이자 영국의 왕립 기구로서 ISO 국제표준기구의 설립을 주도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GS칼텍스는 1997년 제정된 'GS칼텍스 윤리규범'을 올해 3월 '기업행동규범'으로 전부 개정하고 사내외에 공표했다. 새로 개정된 기업행동규범은 기존에 산재한 다양한 규정과 정책 등을 통합하고 ESG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했으며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임직원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GS칼텍스는 윤리경영을 기업 문화로 정착하기 회사와 자회사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CP)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GS칼텍스는 2020년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팀을 신설해 공정거래, 반부패 등 다양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와 윤리경영시스템, 사내 SNS의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를 활용해 전사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 인증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윤리경영과 준법지원을 강화해 ESG 가치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클로이 가이드봇' 경마공원서 달린다

서울경마공원서 방문객 맞이
안내·광고·보안업무 등 수행

LG전자 로봇이 경마공원에서도 일하게 됐다.

LG전자는 5일부터 재개장하는 서울경마공원에서 LG클로이 가이드봇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클로이 가이드봇은 방문객 안내와 광고, 보안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전면과 후면에 27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안내를 하며, 야간에는 카메라로 출입자 감지 등 보안 업무까지 수행 가능하다.

서울경마공원에서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주요시설 안내를 맡았다. 원하면

LG 클로이 가이드봇 /LG전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목적지 동반 서비스'까지 해준다. 디스플레이에서 마사회 소개 영상과 실시간 경주 정보까지 알려준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함께 사진찍기와 사진 찍어주기 기능도 추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차, 아이오닉 대형 SUV 콘셉트카 '세븐' 티저 공개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디자인 비전을 담은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대형 SUV 콘셉트카 '세븐(SEVEN)'의 티저 이미지를 4일 처음 공개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으론 구현할 수 없었던 새로운 SUV 전기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븐은 아이오닉의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형태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헤드램프에 적용해 존재감을 드러낸다. 파라메트릭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대차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 티저 이미지.

세븐은 또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안락한 시트 배치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성을 통해 거주 공간(Living Space)을 테마로 했던 아이오닉 5의 실내 디자인보다 한 층 발전된 모습을 선보인다. 차량 내부는 우드 소재와 패브릭 시트 등으로 아늑한 공간을 표현한 프리미엄 라운지를 연상시키며 대형 전기 SUV 차량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대차는 이달 열리는 미국 LA(로스앤젤레스)오토쇼에서 세븐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마그나-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지역 사회와 상생을 약속했다.

LG마그나는 4일 인천광역시 등과 인천광역시청에서 LG마그나의 성공적인 전기차 부품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마그나는 협약을 통해 인천시 등과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 혁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은 LG마그나 본사가 있는 지역이다. 연구개발 및 생산 사업장도 운영 중이다. 향후 대규모 투자로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와 현지 소재 협력업체들과 클러스터 조성 및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LG마그나는 ESG 경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 등에 행정업무 지원을 받으며 직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기업이 양질의 인력과 윤택한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LG마그나는 협약 파트너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부품 사업을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LG마그나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전기차 부품과 같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성장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